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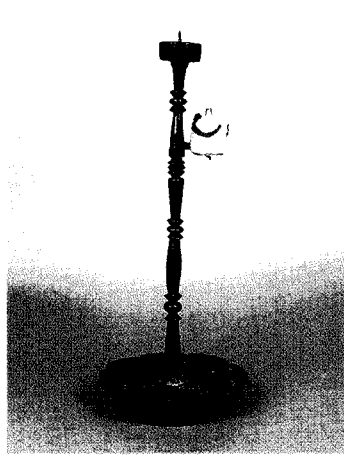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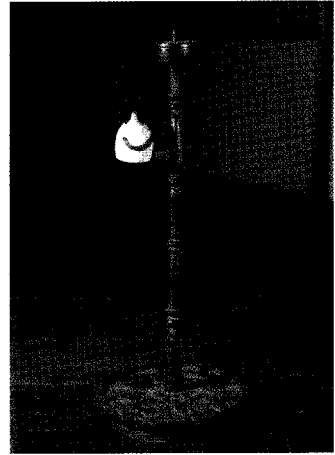


사진 2

결합형 등잔대 - 등경(燈檠) 겸용 촛대

등잔대 가운데 등경과 등가를 구분하여 그 형태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등잔대는 등경과 등가로 구분이 되지만, 더러 한 등잔대에 등경과 등가, 등경과 촛대, 등가와 기름병, 그리고 등경, 등가, 촛대의 세 가지 기능 모두를 갖춘 형태도 있다. 등잔대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조명 형태들을 부가적으로 덧붙임으로써 복합적 기능 활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불의 조도(照度) 강화뿐 아니라 조명 재료의 보관과 조명 수단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실용성에서 한층 돋보인다. 아무래도 조명을 위한 장치로서, 등잔을 올려놓은 단순한 한 가지 기능보다는 두세 가지 복합기능을 갖추게 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을 것이다.

[사진1]은 나무로 만들어진 등경 겸용 촛대이다. 촛대 기둥[竿柱] 옆에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잔걸이를 만들고, 그 위쪽에 초를 꽂을 수 있도록 초꽂이를 만들었다. 보통 '등잔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전체의 형태와 기능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촛대라고 분류를 한 것이다. 갈이틀[선기; 鋸機]을 이용하여 깎은 것인데, 나무의 질감 표현과 전체적으로 일정한 비례의 둥근 면 처리가 돋보인다. 갈이틀의 경우는 앞의 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재료를 틀에 고정시켜 두고 굴대를 돌리면서 칼(갈이칼)을 대어 여러 가지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 내는 우리나라 전통 목공예 기법의 하나이다.

[사진2] 또한 등경 겸용 촛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촛대 기둥 옆 등잔걸이 부분은 낫쇠를 이용하여 등잔을 받칠 수 있도록 하였다. 촛대 기둥의 경우 나무를 조각한 것으로, 대나무 마디 형상의 죽절문(竹節紋)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전체적인 조형미를 살렸다. 언뜻 보아 갈이틀을 이용하여 깎은 듯하지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손으로 직접 깎아 세밀하게 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밑받침은 화사한 연잎무늬 조각이 가장자리를 감싸고, 그 바탕에 '富貴多男'이라는 글씨를 양각하여 길상(吉祥)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1] 목제등경겸용촛대[木製 燈檠 兼用 燭臺]// 조선 후기// 밑지름 20cm, 높이 55.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목제등경겸용촛대[木製 燈檠 兼用 燭臺]// 조선 후기// 밑지름 23cm, 높이 67.5cm// 한국등잔박물관